불가촉천민 재현에 나타난 모방된 오리엔탈리즘으로서의 내셔널리즘

- 물크 라즈 아난드의 『불가촉천민』을 중심으로 -*

김인숙**

〈차 례〉

1. '서발턴'과 '재현'의 문제
2. 『불가촉천민』에 나타난 '불가촉천민'의 재현 양상
3. 모방된 오리엔탈리즘으로서의 내셔널리즘의 한계
4. '다른 사유'로 나아가기

【국문초록】

이 글의 목적은 불가촉천민의 재현에 나타난 모방된 오리엔탈리즘으로서의 내셔널리즘을 고찰하는 데에 있다. 이를 위해 물크 라즈 아난드(Mulk Raj Anand)의 소설 『불가촉천민』(*Untouchable*)에 나타난 불가촉천민의 재현 양상을 분석하였다. 아난드는 영국 독자들을 향하여 인도 사회의 이국적인 특징을 묘사하는 방식으로 불가촉천민을 재현하였다. 그리고 소설의 후반부에서는 간디의 연

* 이 논문은 2013년 정부(교육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13S1A5B5A07048895)

** 가천대학교 글로벌교양대학 연구원

설과 젊은 시인의 말을 인용하면서 불가촉천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두 가지 방안을 내놓고 있다. 하나는 힌두 사회의 개혁이고, 다른 하나는 서구식 발전 모델에 따라 산업화하는 것이다. 이처럼 '서구식 문명'을 인도 사회가 총력을 기울여 따라잡아야 할 대상으로 설정하는 태도에서 분명히 드러나는 것은 모방된 오리엔탈리즘으로서의 내셔널리즘이다. 하지만 이러한 방식으로는 인간 해방을 위해 인간을 착취하는 모순된 구조에서 벗어나기 어렵다. 타고르의 반성적 성찰에 따르자면 인도 사회에서 인간성 회복을 위해서는 서구식 모델이 아닌 '다른 사유'가 필요하다.

주제어: 불가촉천민, 재현, 모방된 오리엔탈리즘, 내셔널리즘, 다른 사유

1. '서발턴'과 '재현'의 문제

'서발턴은 말할 수 있는가?' 이것은 1988년에 스피박이 쓴 논문의 제목이자, 이후 수많은 연구자들이 가능성을 되물으며 그에 도전적으로 답해왔던 질문이다. 1986년의 논문에서 스피박은 비탄에 찬 어조로, "서발턴은 말할 수 없다"[1]고 결론을 내렸다. 이후 1999년에 『포스트식민이성비판』을 내면서 그녀는 논문 집필 당시 내린 결론에 설명을 덧붙였다. 문제의 논문을 쓸 당시, 스피박은 '몸으로 말하기'를 시도했던 바두리가 그녀의 가족들과 여성들 사이에서조차 '말하기'에 실패한 것을 목도하였다는 것이다. 반제국주의 운동에 참여하였고 그 일 때문에 자살했던 바두리의 죽음은 의미

1) Gayatri Chakravorty Spivak, "Can the subaltern Speak?", *Marxism and the Interpretation of Culture*, Ed. by Cary Nelson and Lawrence Grossberg, London: Macmillan, 1988, p. 308.

없는 것이 되고, 제국의 중심에 우뚝 서게 된 바두리의 조카손녀들이 가족들의 환대를 받는 모습이 스피박을 절망시켰다. 스피박은 자신의 선언이 그런 상황에 대한 직접적인 반응이었으며, 현명한 말은 아니었다고 술회한다. 스피박이 문제 삼고 싶은 것은 바로 침묵에 공모하는 상황이었다. 문제는 식민지 권력자들의 침묵이 아니라, 침묵에 공모하는, 바두리의 손녀딸과 같은, 메트로폴리탄 학계의 연구자들이다.[2)]

스피박이 지적하는 바와 같이 서발턴이 헤게모니로 향하는 도정에 들어서기 위해서는 일차적으로 의사소통의 회선이 마련되어야 한다.[3)] 소설이란 장르는 다른 어떤 매체보다도 구체적이며 생생하게 서발턴의 목소리를 담을 수 있다는 의미에서 소통의 장(場)이 될 수 있다. 소설의 힘은 바로 '형상화'에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재현'의 자장(磁場)에는 항상 재현하려는 힘과 재현을 가로막는 힘이 같이 분출되어 나온다. 따라서 '누가' '누구를' 재현하는지, 누가 '누구를 향해' 재현하는지를 모두 고려해야 한다.

그렇다면 재현의 대상인 서발턴은 누구인가? 인도의 서발턴 연구 그룹에서는 '서발턴'의 상대어로 '엘리트'(elit)라는 말을 사용한다. 이 말은 "토착민은 물론이고 외국인을 포함한 지배 집단"[4)]을 의미한다. 따라서 '서발턴'은 상대가 누구냐에 따라 다른 이들이 될 수 있다. 영국 지배 집단이 '엘리트'라면, 인도 토착민이 '서발턴'이 될 수 있으며, 토착 지배 집단이 '엘리트'라면, 토착민 피지배 집단이 '서발턴'이 된다. 이처럼 '서발턴'의 위치가 상대적이라는 점을

---

2) Gayatri Chakravorty Spivak, *A Critique of Postcolonial Reason: toward a history of the vanishing present*,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1999, pp. 308-309.

3) Spivak, Ibid., p. 310.

4) Ranajit Guha, "On Some Aspects of Historiography of Colonial India", *Selected Subaltern Studies*, Ed. by Ranjit Guha and Gayatri Chakravorty Spivak,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1988, p. 44.

고려한다면, 우리가 서발턴 연구라고 했을 때 누구를 대상으로 삼느냐에 따라 문제의 핵심이 달라지리라는 것은 자명하다.

이 글의 첫 번째 장에서는 영국의 식민지 지배자들에게는 서발턴일 수 있는 인도의 토착민 엘리트가 인도 사회의 최하층민인 '불가촉천민'(untouchable)[5]을 어떻게 재현하고 있는지를 살펴보게 될 것이다. 이때 '과연 누가 서발턴인가?'하는 대상을 향한 물음은 '누가 누구를 서발턴으로 보는가?'라는 주체를 향한 물음으로 바뀌게 된다. 이 글의 두 번째 장에서는 불가촉천민의 재현에 나타난 모방된 오리엔탈리즘으로서의 내셔널리즘을 고찰하게 될 것이다. 이를 위해 물크 라즈 아난드(Mulk Raj Anand)의 소설 『불가촉천민』(*Untouchable*)에 나타난 불가촉천민의 재현 양상을 분석하고, 인도 사회에서 불가촉천민의 문제 해결방안으로 제기되는 내셔널리즘이 지닌 한계를 살펴보고자 한다.

---

5) 카스트 제도 안의 각 집단은 바르나(Varna)와 자띠(Jati)라는 두 가지 범주로 분류할 수 있다. 우리가 보통 네 개의 카스트, 즉 브라만, 끄샤뜨리아, 바이샤, 슈드라로 나누는 것은 '바르나'에 따른 분류이다. 그런데 이 바르나는 사람들이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범주가 아니다. 바르나는 큰 틀에서의 포괄적이고 관념적인 분류법이고, 실제로 일상생활에서 어떤 사람이 어떤 카스트에 속해 있느냐를 말할 때는 '자띠'라는 기준을 적용한다. 자띠는 정확하게 집계가 안 될 정도로 복잡하다. 3,000개 이상의 자띠가 있다고 보기도 하는데 주로 직업과 관련되어 있다. 직업 외에 중요한 기준은 의례이다. 일상생활에서 어떤 행위를 함께 할 수 있는 집단이 카스트에서 같은 집단이다. 식사를 같이 하는가, 혼인 관계를 맺을 수 있느냐, 마을의 사원이나 공동 우물을 함께 사용할 수 있느냐, 심지어 마을의 길을 같이 이용할 수 있느냐 등등 일상생활의 의례적 부분에서 아주 엄격하게 구분되는 집단들을 자띠라고 부른다. 같은 바르나 안의 자띠 간에도 아주 엄격한 위계가 있다. 불가촉천민에 해당되는 사람들 안에서도 자띠 간에 상위 바르나와의 관계보다 훨씬 엄격한 위계질서가 있어서 차별이 자행된다. 예를 들면, '바르나' 체계로 보았을 때 불가촉천민은 네 개의 범주 바깥에 있는 최하층민이다. 그런데 '자띠'로 보면 불가촉천민 내에서도 직업에 따라 위계가 있다. 세탁부나 피혁공에 비해 청소부(똥치기)는 불가촉천민 내에서도 차별과 멸시의 대상이다. (한형식, 이광수 지음, 『현대 인도 저항운동사』, 그린비, 2013, pp. 151-152 참조.)

2. 『불가촉천민』에 나타난 '불가촉천민'의 재현 양상

『불가촉천민』은 1935년에 출판된, 물크 라즈 아난드의 첫 번째 소설이다. 1928년에 작가가 간디의 저술에서 강한 영감을 받고서 집필을 계획하여 1932년에 완성한 이 소설은 출판되기까지 19명의 편집자에게 거절당한 후, E. M. 포스터에게 서문을 부탁한 다음에야 출판될 수 있었다고 한다.[6] 이 소설은 28개 국어로 번역되어 널리 읽혔는데, 인도 근대 문학의 형성에 기여했다는 긍정적인 평가에서부터, 작가가 인도 사회의 어두운 일면을 팔아 영국 문단에서 입지를 굳히려고 시도한 작품이라고 비판을 받기도 하였다.

소설에서 작가가 '무엇'을 말하고자 하였는가는 결국 형상화를 통해 드러난다. 그렇기 때문에 재현 양상을 고찰하는 것은 소설 연구에서 중요한 부분이다. 그런데 재현을 문제삼을 때에는 '누가' 재현하는가와 더불어 '누구를 향해' 재현하는가도 살펴봐야 한다. 우에노 치즈코의 말처럼, 이야기에 대한 물음은 언제나 이중성을 갖고 있다. 그것은 '누가 이야기 하는가'라는 이야기하는 사람의 문제와 '누구를 향해 이야기 하는가'라는 듣는 사람의 문제이다.[7]

벤 코니스비 바에르에 따르면 아난드의 『불가촉천민』은 궁극적으로 영국의 엘리트를 향한 발화였다. 소설이 영어로 창작되어 영국에서 발표된 것으로도 이런 해석에 타당성이 부여된다고 할 수 있지만, 바에르는 소설의 마지막에 작가가 의도적으로 발신자의 위치를 드러낸 것에 주목하였다. 소설의 마지막 페이지에 있는 두 줄에서 작가는 발화 지점을 인도로, 수신 지점을 영국으로 설정하였다.

---

6) Atma Ram, "A Reading of Mulk Raj Anand", *Poetcrit*, Jan. 2010, p. 4.

7) 우에노 치즈코(上野千鶴子) 지음, 이선이 옮김, 『내셔널리즘과 젠더』, 박종철출판사, 2000, p. 180.

SIMLA—s.s. Viceroy of India—BLOOMSBURY
September-October 1933 [8]

이 소설이 사실상 1928년에서 1932년 사이에 쓰였으며, 소설을 완성한 곳도 영국이었음을 감안하면 위에서 작가가 소설의 마지막에서 지명과 날짜를 위와 같이 표기한 것은 다분히 의도적인 것이었다. 당시 영국에서 〈진보 작가 협회〉(PWA. The Progressive Writer's Association)를 설립하는 데에 중심인물이었던 아난드는 '새로운 대중 창조'를 고심하던 작가 협회의 이념을 반영하여, 인도의 하층민을 묘사하는 소설을 완성한 것이다.[9]

그렇다면 영국의 독자들을 향하여 작가는 인도 사회의 최하층민을 어떻게 재현하였을까? 먼저 소설의 줄거리를 살펴보자. 소설의 주인공인 바카(Bhaka)는 변소를 치우고, 길거리와 사원 등을 청소하는 일을 한다. 그는 힌두 사회의 카스트 중 최하위인 불가촉천민으로 분류된다. 인도 사회에서는 만일 이들이 상층 카스트와 '접촉'하면 이들의 '더러움' 때문에 상층 카스트 사람들을 '오염'시킨다고 믿기 때문에 이들은 상층 카스트와 접촉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그들은 마을의 우물물을 길을 수도 없다. 소설에서는 바카의 하루 생활이 그려지는데, 그는 아침부터 변소를 청소하고 오전 무렵에는 사원 청소를 위해 거리에 나섰다가 지나가던 사람과 접촉했다는 이유로 사람들에 둘러싸여 모욕을 당한다. 여러 가지 수모

8) Mulk Raj Anand, *Untouchable*, Penguin Books, 1940, p. 157. 이 책의 인용 부분은 Penguin Books와 한국어 번역본(M. R. 아난드 지음, 정혜경 옮김, 『어느 천민의 하루』, 한길사, 1985.)에 따랐다. 이하 한국어 인용 부분은 정혜경의 번역을 그대로 옮겼다. 번역본에 없는 포스터 서문의 일부분이나 영어를 직접 옮기는 부분, 소설의 마지막 서명 등은 영어본에서 인용하였다.

9) Ben Conisbee Baer, "Shit Writing: Mulk Raj Anand's *Untouchable*, The Image of Gandhi, and the Progressive Writers' Association", *Modernism/modernity*, 16-3, Sep. 2009, pp. 583-86.

를 겪은 바카는 오후 늦게 우연하게 간디의 집회에 모인 군중 속에 섞이게 된다. 거기서 불가촉천민을 차별하지 말아야 한다는 간디의 연설에 감화를 받는다. 집회 후에는 변호사와 젊은 시인의 대화를 들으면서, 바카는 불가촉천민들의 차별도 사라질 수 있다는 희망을 안고 황혼녘에 집으로 돌아간다. 바카의 하루는 그렇게 지나가고, 소설도 끝을 맺는다.

이 소설은 조이스의 『율리시스』나 버지니아 울프의 『댈러웨이 부인』에서 영향을 받아 주인공의 하루를 시간 순서대로 그리고 있는데,[10] 여기에는 두 가지 중요한 사건이 있다. 하나는 불가촉천민인 주인공 바카가 사람들 앞에서 모욕을 당하는 '접촉' 사건이고, 다른 하나는 바카가 우연히 참석하게 된 '간디 집회' 사건이다. 이 소설에서 접촉 사건은 가장 극적인 방식으로 그려진다.

소설의 주인공 바카는 감수성이 예민한 10대 청년으로, 인도 사회의 최하층민에 속하면서도 영국군 막사를 청소하면서 영국 문화를 접했기 때문에 자신은 동족과는 다르다고 생각한다. 바카는 아침 변소 청소를 마치고 거리와 사원 청소를 위해 큰길로 나선다. 그는 사면에서 밀려오는 여러 가지 감각에 휩쓸려 상점의 물건들과 온갖 사람들에 정신을 빼앗긴 채 이것저것을 신나게 구경한다. 초점화자로 설정된 바카의 입장에서 이야기가 줄곧 서술되기 때문에 독자들도 바카의 눈에 비친 신기한 거리 풍경에 빠져든다. 그러다가 갑자기 터져나오는 외침은 바카를 깜짝 놀라게 하는 것과 동시에 바카의 관점을 따라가던 독자들에게까지도 똑같은 충격을 준다. 인물들 간의 대화를 그대로 옮기는 묘사적 기법을 사용하여, 현장에 있는 듯한 극적인 효과가 극대화되었기 때문이다.

---

10) Jessica Berman, "Toward Regional Cosmopolitanism: The Case of Mulk Raj Anand", *Modern Fiction Studies*, 55-1, Spring 2009, p. 149.

"저리 비켜, 이 더러운 벌레 같은 놈!" 그는 갑자기 누군가가 악쓰는 소리를 들었다. "이 돼지 같은 놈, 왜 소리를 쳐 오는 걸 알리지 않느냔 말야! 수탉 눈에다 안짱다리를 해가지구. 니 몸이 스쳐서 날 더럽힌 걸 알기나 해, 이 전갈 같은 놈 같으니라구! 또 가서 목욕재계를 해야 하잖아. 이것은 오늘 아침 입은 새 두티와 셔츠란 말이야!" (…) "개새끼! 잡놈의 새끼! 돼지새끼!" 화가 머리끝까지 난 그는 혀를 빨리 돌리다 못해 말을 제대로 잇지 못하면서 소리를 쳤다. "난…… 난 가서…… 옷 옷 옷을 빨구…… 난…… 난 일 때문에 가고 있었는데 지금…… 너 때문에, 늦겠잖아."[11]

온갖 욕설을 들으면서 군중에 둘러싸여 창피를 당하는 바카의 상황은 불가촉천민이 상층 카스트와 '접촉'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생생하게 보여준다. 넋 놓고 거리를 구경하는 청년이야말로 청천벽력과 같은 봉변을 당한 것이지만, 더러운 것(바카)에 부딪친 상층 카스트의 남자는 번거로운 '정화' 과정을 거쳐야 하기에 분노를 폭발하는 것이다.

소설의 서문을 쓴 E.M. 포스터는 이 소설이 '수사적 표현과 완곡한 어법을 피한 채 중심 주제를 직설적으로 전달'하였고, 그리하여 '소설 전체를 정화시켰다'고 평가한다.[12] 아난드는 유럽인에게는 낯선 '똥치기'의 냄새나고 더러운 일상을 세세하게 그렸을 뿐만 아니라, 부당한 차별을 당하는 청년을 극적으로 형상화함으로써 문제의식을 부각시켰다. 이는 인도 사회의 카스트 제도가 지닌 불합리성(낯설음)을 소설적 형상화(친숙함)를 통해 효과적으로 드러낸 것이다. 영국 독자들에게 진귀한 구경거리를 제공하면서 동시에 자신들에게 부여된 '문명화 사명'을 다시금 상기하게 되는 사건이다.

의도했든지 의도하지 않았든지 간에 작가는 『불가촉천민』을 통

11) M. R. 아난드 지음, 앞의 책, p. 40.
12) M. R. 아난드 지음, 앞의 책, p. 3.

해 '토착민 정보 제공자'의 역할을 하고 있다. 이는 인물과 사건을 묘사하는 태도에서도 드러난다. 먼저, 소설에서 인물을 묘사하는 표현에 서구화된 시각이 담긴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소설의 여러 곳에서 바카의 얼굴은 '검고, 넓고, 둥근 얼굴'로 묘사된다. 동족의 얼굴을 묘사할 때 변별력 있는 이목구비를 묘사는 대신, 서구인의 눈에나 두드러질 법한 특징인 '검은 피부', '넓고 둥근 얼굴'을 반복적으로 서술하는 것이다.

또한 소설에는 '각주'가 달려서 '이국적인' 인도식 영어 표현이나 힌두교 풍습 등이 풀이되어 있다. 'jemadar', 'izzat'와 같은 말에는 각각 'Head or Foreman', 'Prestige'와 같은 의미 풀이가 각주로 덧붙는다. "Ram, Ram, Sri, Sri, Hari, Narayan, Sri Krishna" 등과 같은 대화체 표현에도 각주를 달아서 이 말들이 "최고신이 다양하게 변모한 화신(化神)의 이름"[13]임을 설명하고 있다. 또한 바카의 아버지가 바카가 아기 때 아팠던 이야기를 들려주면서, "사람들은 네가 곧 죽을 테니 땅바닥에 눕히라고 했단다."[14]라고 전하는 부분에서는 각주로 힌두교의 풍습을 자세하게 덧붙였다. 이처럼 작가는 소설가이면서 동시에 번역자의 입장에서 소설을 쓰고 있다. 이것은 인도인이면서 영국인의 시선을 내면화한 것이다. 여기에는 인도인(피식민자)의 시선과 영국인(식민자)의 시선이 얽혀 있다.

아난드가 영어로 쓴 이 소설은 인도 대중이 사용하는 펀잡어와 힌두어를 생동감 넘치는 영어 표현으로 옮겼다는 평가를 받는다. 인도 문학에 대해 논의할 때 그것이 토착어로 쓴 것인지, 영어로 쓴 것인지는 항상 논란의 대상이 되어 왔다. 인도 문학인들은 한

13) Mulk Raj Anand, op. cit., p. 57.

14) 각주 내용은 다음과 같다. "힌두인들은 사람이 침상에서 죽지 못하게 하고 가능한 한 땅 가까이 눕힌다. 이것은 인간이 흙에서 와서 흙으로 돌아간다는 생각에서 나온 것이다." (Mulk Raj Anand, op. cit., p. 81.)

자리에 모일 때마다 언어 문제로 격론을 벌이지 않은 적이 없다고 한다. 하지만 수크리타 폴 쿠마르의 지적처럼, 이미 '영어적 경향'[15]에서 자유롭지 못한 인도의 작가들에게 언어의 문제가 곧장 재현의 문제로 연결되는 것은 아니다. 이 소설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내면화된 오리엔탈리즘의 시각에서 인도 하층민의 실상을 '이국적인 특징'들로 묘사하고 있다는 점이다.

사건과 인물을 재현하는 방식에서 이 소설은 예상독자인 '영국인'을 향한 발화임이 분명히 드러난다. 재현의 기회를 얻기 어려운 인도 사회의 서발턴이 재현의 대상이 되었지만, '중심'을 향해 서발턴을 대표(represent)하는 엘리트의 목소리에는 서발턴의 목소리가 제대로 담기기 힘들다.[16] 작가는 온정주의적 태도로 인물이 당하는 부당한 상황을 묘사함으로써 '오리엔트의 야만성'을 폭로한다. 여기서 암묵적으로는 '서구식 근대화'의 필요성이 제기되는 것이다.

3. 모방된 오리엔탈리즘으로서의 내셔널리즘의 한계

『불가촉천민』은 아난드가 일찍이 조이스, 울프, 포스터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밝힌 바 있다. 그래서 이 소설에 대해서 하루 연대기 구성, 내적 독백 사용, 의식의 흐름 등의 특징이 드러난다는

15) 수크리타 폴 쿠마르, 「인도 문화 다양성-다언어, 그리고 언어와 문학의 상호 작용」, 『아시아』 통권 13호, 2009년 여름호, p. 226.

16) '접촉' 사건으로 굴욕을 당하는 바카 외에도 이 소설에서는 바카의 여동생 '소히니'가 시종일관 성적 대상으로 포착되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녀는 '육감적인 육체'를 중심으로 묘사된다. 남성들은 하나같이 욕정어린 눈으로 그녀를 쳐다보고, 브라만 승려는 '불가촉' 천민임에도 그녀의 가슴을 만진다. 하지만 소설에서 소히니의 처지나 심정은 전면화되지 못한다. 오히려 소히니가 성전에서 당하는 성희롱 사건은 '그녀 때문에 당하는 집안의 수치'로서, 바카의 입장에서 서술된다.

이유로 모더니즘의 기법을 시도했다는 설명도 있지만, 그것은 "실망스러운 정도"[17]라는 평가가 타당하다. 오히려 이 소설은 포스터가 서문의 첫머리에서 "이것은 깨끗한 책인가, 아니면 더러운 책인가"[18]를 물을 정도로 사실적 묘사가 뛰어난 리얼리즘 소설로 평가받는다. 하지만 소설의 후반부에 이르면, 전반부의 형상화에 비해 과도한 연설들이 이어진다. 주인공 바카에게 감화를 주는 간디의 연설이나 그 연설에 대한 반응으로 젊은 시인과 변호사가 나누는 대화 역시 서술자의 요약이나 설명 없이 장황하게 이어진다. 즉 소설의 후반부에는 연설과 그에 이어지는 주인공의 반응이 중심이 되면서, 전반부에서 묘사된 불가촉천민 바카의 경험이 '인도 사회의 문제'로 추상화된다.

소설에 담긴 군중 집회 연설에서 간디는 불가촉천민을 대하는 상층 카스트의 도덕적 잘못을 지적한다. 그리고 불가촉천민들 스스로도 자신들의 삶을 바꿔나가야 한다고 말한다. 그렇게 함으로써 힌두 사회의 모순을 힌두인들의 도덕적, 종교적 각성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것이다.

> 우리는 한편으로 외국의 압제에서의 자유를 요구하고 있으면서도, 수세기 동안 스스로 우리의 과오에 대한 한 치의 뉘우침도 없이 수백만 인간 존재를 짓밟아왔습니다. 나로서는 이 사람들의 문제가 도덕적 종교적인 성질의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그들을 위해서 죽기를 각오하고 단식을 감행한 것은 내 양심의 명령에 복종하였던 것뿐입니다.[19]

---

17) Jessica Berman, op. cit., p. 150.

18) 포스터는 서문의 첫머리에서 자신이 쓴 『인도로 가는 길』(*A Passage to India*)을 읽고서 어떤 육군 대령이 분개해서 읽고 태워버렸다는 일화를 언급한다. 그리고 그 이유가 그 책에서 화장실 청소부의 일을 묘사한 것 때문이었다고 한다. 포스터는 그런 백인들이라면 『불가촉천민』은 몇 페이지만 읽고도 얼굴을 붉히며 화를 낼 것이라고 말한다. (E. M. Foster, "Preface", *Untouchable*, op. cit., p. v.)

19) M. R. 아난드 지음, 앞의 책, p. 127.

간디는 "다시 태어난다면 천민 신분으로 태어나 그들의 슬픔과 고통, 그들이 받는 모욕을 함께 나누어 가지고 싶다"[20]고 말할 정도로 불가촉천민들이 겪어왔던 차별과 억압을 문제시하고 그들의 고통에 깊이 공감하였다. 이것은 간디가 1930년대부터 '하리잔'[21] 운동을 본격화하였다는 사실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소설에서 바카는 간디의 연설에 깊이 감화된다. 그를 위해서라면 생명을 내어주고 마음대로 하라고 할 만큼 숭배하는 마음이 생겼고, "마하트마의 암자에 가서 청소부가 되고 싶다"[22]는 생각도 한다. 하지만 소설의 마지막에서 바카는 '불가사의한 마하트마의 얼굴'을 떠올리면서도, '그 얼굴에서는 대답을 찾을 수 없다'고 생각한다.

실제로 불가촉천민 운동에 대한 연구에 따르면, 간디의 '하리잔 운동'에 대해서, 불가촉천민들의 반응은 그다지 긍정적이지 않았다고 한다. "모든 사람들이 신의 자식인데 왜 불가촉천민에게만 특별히 '신의 자식'이라는 이름을 붙이는가? 이건 우리를 어린애 취급하는 것"[23]이라는 반감도 있었다. 불가촉성을 철폐해야 하는 이유는 그것이 힌두이즘의 타락한 모습이기 때문이며, 힌두들이 자신들 속에 뿌리박은 비도덕성을 정화하고 마음을 고쳐먹으면 이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되어, 불가촉천민들도 '바르나 체계'[24] 안

---

20) M. R. 아난드 지음, 앞의 책, p. 128.

21) '신(Hari)의 자식들(Jan)'을 의미하는 하리잔은 '불가촉천민'이나 '피억압 카스트'처럼 최하층 카스트들의 상태를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이름들 대신, 이들에게 자긍심을 주고 카스트 힌두들이 이들을 존중하자는 뜻에서 1930년대 초부터 간디가 널리 사용한 이름이다. 간디는 독립 운동에 참여한 초창기부터, 인도의 진정한 독립을 위해서는 불가촉성을 전면적으로 철폐하여 힌두들을 단결시키는 것이 힌두-무슬림의 담합에 못지않게 근본적인 과제라는 점을 명백히 공언하였다. (정채성, 「하리잔(Harijan)과 달리뜨(Dalit) : 불가촉천민의 집단의식 형성」, 한국인도학회, 『인도연구』, Vol.8, No.1, 2003, p. 69.)

22) M. R. 아난드 지음, 앞의 책, p. 128.

23) 정채성, 위의 글, p. 71.

에서 자신의 의무를 다 하면서 힌두들과 동등한 자격으로 조화롭게 살 수 있다는 것이 간디의 일관된 입장이었다.[25] 그러니까 간디의 개혁은 철저히 힌두이즘의 틀 내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었다.

바카가 간디의 연설에서 위로를 얻기는 하지만, "그렇지만 결코 변소를 떠날 수는 없단 말인가?"[26]라고 회의했던 마음은 시인의 말을 떠올리면서 희망적으로 바뀐다. 간디의 연설이 끝나고 엿들은 시인과 변호사의 대화를 그는 다 이해할 수는 없었지만, '똥을 만지지 않고 치우는 기계'라는 말에 마음속에 있는 가장 절실한 문제에 답을 얻게 된다.

> 마하트마는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지만, 법 앞에서 모든 사람의 권리를 인정하는 영국식 형법에 의해서 카스트의 법적 사회적 기초는 이미 무너진 셈이니까. 사실 현 카스트 제도를 유지시키는 것은 주로 직업의 문제지. 똥치기들이 직업을 바꾸는 경우 그들은 더 이상 천민 신분에 속하지 않게 될 거야. 이것은 곧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하는데, 왜냐하면 기계를 받아들일 때 우리는 제일 먼저 똥을 만지지 않고 치우는 기계, 즉 수세식 양변기를 들여올 것이거든. 그렇게 되면 변소

---

24) 불가촉성의 해악에 대한 간디의 입장은, 바르나 체계가 본질적으로 사회 성원들의 조화로운 삶과 정신적 고양을 통해 종교적인 의무를 올바르게 수행할 수 있도록 보장해주는 이상적인 틀이라는 믿음을 바탕으로 삼고 있다. 그에 따르면 이 신성한 바르나 체계에는 원래 불가촉성 같은 사악한 관습이 끼어들 여지가 없으며, 베다(Veda)에는 "제5의 바르나에 대한 언급이 없기 때문에 모든 불가촉천민은 슈드라로 간주되어야 한다." 슈드라의 의무는 상층의 세 바르나를 섬기는 것인데, 이 일은 그 자체로 명예로운 것이다. 왜냐하면, 바르나 성원들의 의무는 각각 다르게 규정되어 있지만 모든 바르나의 지위는 동등한 것이기 때문이다. "청소부 카스트로 태어난 사람은 반드시 청소를 해서 먹고살아야 한다. 청소부라는 직업은 변호사나 대통령과 똑같이 가치 있는 것이다. 나는 그것이 힌두이즘이라고 믿는다."는 간디의 말은 바르나 체계에 대한 그의 종교적인 확신을 명확히 보여준다. (정채성, 위의 글, p. 70.)

25) 정채성, 위의 글, p. 73.

26) M. R. 아난드 지음, 앞의 책, p. 137.

> 청소부들은 천민의 치욕에서 벗어나 신분도 없고 계급도 없는 사회의 구성원으로서의 당연한 권리인, 인간의 위엄을 가질 수가 있게 되지.[27]

젊은 시인은 간디가 부정했던 영국식 의회 제도나 기계 문명 등을 수용하여, 자신들의 종족적 우월성을 바탕으로 유럽인들보다 훨씬 잘 해내리라 장담한다. '법 앞에서 모든 사람의 권리를 인정'하는 제도에 따르고, '수세식 양변기'를 들여와 똥치기들이 직업에 매이지 않게 되고, 그럼으로써 불가촉천민들이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당연한 권리인 인간의 위엄'을 가지게 된다는 것은 결국 '근대화'에 대한 낙관론이다. '동도서기(東道西器)'론처럼 서양의 기술 문명을 수용하되, 인도의 정신 문명이 그것을 타락하지 않은 방식으로 이끌어줄 것이라는 논리이다.

> 우리는 돈을 신으로 섬기는 이 유럽인들의 어리석음을 죽 지켜보고 있지. 그들은 황금을 숭배하느라고 목을 잃어버린 야만인들이야. 우리는 함정에 빠지지 않고 잘 헤쳐나갈 수가 있어. 우리는 6천 년 동안 간직해온 종족의식, 눈에 보이는 가치와 보이지 않는 가치 모두를 수용하는 종족의식이라는 장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지. 우리는 삶과 삶의 은밀한 흐름을 터득하고 있어. (…중략…) 유럽인들이 증기 엔진을 가지고 불안하게 길을 더듬어가는 동안, 우리들은 기계에 관한한 극단까지 나갈 수 있을 거야. 그러면서도 우리는 계속 우리 자신을 보존해서 황금의 노예가 되지 않을 거야. 우리는 꾸준히 삶을 주시하고 전체를 볼 수 있게 될 거야.[28]

젊은 시인의 방식은 매우 실용적이다. 하지만 '수세식 양변기'를 들여오는 것으로 불가촉천민에 대한 차별이 사라지지 않으리라는

---

27) M. R. 아난드 지음, 앞의 책, pp. 135-136.
28) M. R. 아난드 지음, 앞의 책, pp. 133-134.

것은 쉽게 예측할 수 있으며, 사실상 이것이 오늘날까지 인도 사회에서 중요한 문제로 이어진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불가촉천민들에 대한 차별은 도시의 공공장소에서는 크게 줄었으나 인도에서 2/3를 차지하는 농촌지역과 식당, 학교, 사원, 우물과 같은 일상생활에 필요한 모든 곳에 여전히 잔존하고 있다.[29]

인도 사회에서 1920-1930년대 이후에 본격적으로 불가촉천민의 문제가 부각된 것은 식민 지배에 맞서 새로운 민족 국가 수립을 기획할 때 '집단적 응집력'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힌두 민족이 종교적·문화적으로 동일한 기질을 갖는다는 생각이 이데올로기적인 힘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우리'라는 연대 의식을 심어줄 수 있는 새로운 질서 위에 공동체를 재편해야만 했다. 신분제적 질서가 존재하는 한 신분은 '우리'와 '그들'을 가르는 가장 중요한 기준이었으며, 따라서 공동체의 성원 모두를 아우르는 민족의 수직적 통합은 불가능한 일이었다.[30] 따라서 봉건적 질서를 해체하면서, 동시에 장차 발생할 수 있는 계급적 차이에 따른 분열까지도 잠재울 수 있는 강력한 것이 필요했다. 그것이 바로 근대 내셔널리즘 이데올로기이다.

영국의 지배로부터 독립을 이루기까지 인도 사회에는 두 가지 버전의 내셔널리즘이 강력한 힘을 발휘한다. 하나는 근대 문명에 대한 근본적인 비판에서 출발하는 간디의 내셔널리즘[31]이고, 다른

29) 이은구, 「힌디 달리뜨 문학 비평」, 한국외국어대학교 외국문학연구소, 『외국문학연구』 제37호, 2010. 2, p. 294.

30) 임지현 지음, 『민족주의는 반역이다』, 소나무, 1999, p. 31.

31) 간디의 내셔널리즘은 '국가주의'적인 면보다는 '반식민주의' 성격이 강하다. 박홍규의 지적처럼 간디가 꿈꾸는 사회는 오늘날의 시민사회와 비교할 때 그 특징이 잘 드러난다. 서구 시민사회가 국가에 대비하는 개인성의 확장 영역이었다면, 간디의 시민사회는 국가와 대비되면서도 개인성에 초점이 맞추어지지는 않았다. 간디는 국가보다 훨씬 작은 공동체를 긍정적으로 보았다. 공적 영역 내에서 개인은 타인과 협력하는 법을 배우고 토론과 조직 기술을 훈련받으며 사회적 책임감을 획득하고 정치적

하나는 인도 전통 사회의 폐습을 극복하면서 동시에 산업화의 과제를 달성해야 한다는 네루의 내셔널리즘이다.[32] 이 소설에서는 젊은 시인의 말에서 네루식의 내셔널리즘을 볼 수 있다. 반면 서구식 근대 문물과 제도에 대해 반대했던 간디는, 근대 물질문명에 대한 근본적인 회의를 바탕으로 자율적인 소규모 공동체를 꿈꾸며 힌두 내셔널리즘을 강화하였다. 그는 '영국 지배'라는 식민지 인도 사회의 문제가 국가 주권을 되찾는 것으로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하지만 그의 바람은 이루어지지 않았고, 결국 인도 사회는 젊은 시인의 말과 다르지 않은 네루식의 근대화론을 따르며 근대적 국민국가로 재탄생하였다.

불가촉천민에 대한 작가 아난드의 태도는 소설에서 바카에게 하키 스틱을 주는 '차라트 싱'과 흡사하다. 수레싯 렌젠 발드의 지적처럼 이런 온정적 엘리트주의의 근원에 있는 것은 역설적으로 힌두 카스트 문화이다. 약자를 보호하고 불의로부터 그들을 구해야 한다는 사명은 작가 자신의 카스트 신분인 크샤트리아 다르마에서 길러진 것이다.[33] 이런 면에서 불가촉천민에 대한 아난드의 사고방식은 힌두 사회 내의 자각과 쇄신이 필요하다는 간디의 논의와 겹쳐진다. 아난드가 인도 사회의 불가촉천민의 문제에 대해 눈을 뜨게 된 것은 영국에서의 경험 때문이다. 그가 보기에 영국의 청

으로 행동할 수 있도록 자력화된다고 생각한 것이다. (박홍규, 「간디의 자유사상」, 영남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인문연구』 62호, 2011, 9, p. 242.)

32) 식민 세계와의 관계에서 인도의 내셔널리즘을 고찰한 짯떼르지는 네루의 내셔널리즘을 '도착 국면'으로 설명한다. 스스로를 국가 이데올로기로 구성하여 민족의 삶을 국가의 삶으로 전유한 것이 바로 내셔널리즘의 도착점이다. 이런 이데올로기로 무장하여 국민국가 체제를 갖춘 인도는 산업화를 향해 총력을 쏟기 시작한다. (빠르타 짯떼르지(Partha Chatterjee) 지음, 이광수 옮김, 『민족주의 사상과 식민지 세계』, 그린비, 2013, pp. 273-343 참고.)

33) Suresht Renjen Bald, "Politics of Revolutionary Elite: A Study of Mulk Raj Anand's Novels", *Modern Asian Studies*, 8-4. 1974, p. 488.

소부들은 화장실을 치우든 거리를 청소하든 자신의 일이 끝나면 옷을 갈아입고 유유히 돌아간다. 아무도 그들을 더럽다고 비난하지 않는 영국 사람들의 태도에서 그는 큰 충격을 받았던 것이다.[34] 그래서 불가촉천민에 대한 해결책은 '수세식 화장실' 도입으로 귀착된다.

아난드의 관심이 어디에 있었는가를 평가하는 일은 매우 민감한 문제이다. 소설의 세계가 작가의 의도대로 되는 것도 아니고, 소설의 세계를 작가의 세계와 동일한 것으로 간주할 수도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작가의 '세계 해석'이 어떤 식으로든 작품의 형상화에 관련된다고 할 때, 불가촉천민의 문제를 다루는 이 소설의 결말은 작가의 세계관과 분리될 수 없다.

포스터가 서문에서 지적하는 것과 같이 불가촉천민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바카가 마주쳤던 영국인 선교사의 포교 활동을 통해서도 아니고, 간디의 연설을 통해서도 아니며, '수세식 화장실'에 중심이 놓인다. 결국 천민폐지와 시민사회 형성이라는 환상적 비전은 산업화에 달린 것인데, 이것은 인도를 근대화하는 영국 식민정부의 정책에 의존하는 것[35]이기도 했다.

김재용의 지적처럼, 앞서 산업화를 이룬 구미 제국주의 침략으로 서구의 삶을 '문명'으로 인식하는 순간, 비서구 사람들에게는 '구미의 국민국가를 따라 배우는 것'이 최대의 과제가 되어버린다.[36] 그렇기 때문에 제국주의에서 벗어나자는 내셔널리스트의 외침은 곧바로 '서구 따라잡기'에 총력을 기울이자는 외침으로 변모한다. 식민자를 넘어서기 위해 식민자의 논리를 내면화하는 것이

34) Jessica Berman, op. cit., p. 153.

35) K. D. Verma, "The Metaphors of Untouchable and Coolie in Mulk Raj Anand's Novels *Untouchable* and *Coolie* and His Sense of Social Justice", *Asiatic*, 2-1, June 2008, p. 37.

36) 김재용 지음, 『세계문학으로서의 아시아문학』, 글누림, 2012, pp. 35-37.

바로 모방된 오리엔탈리즘으로의 내셔널리즘인 것이다.

독립 후 근대 국민국가로 재탄생한 인도가 걸어온 길을 살펴보면 산업화를 이끈 내셔널리즘 이데올로기의 허위가 분명히 드러난다. 짯떼르지의 지적처럼, 국민국가가 민족(국민)의 삶을 온전히 전유하는 일은 세계 어느 곳에서도 일어나지 않았다.[37] 이렇게 볼 때 서발턴의 위치는 항상 내셔널리즘 이데올로기가 심문당하는 지점이었다. 불가촉천민 문제를 경유하여 '모방된 이데올로기로서의 내셔널리즘'을 고찰할 때, 우리 앞에는 '부정'의 형태로 '다른 사유'의 가능성이 열리게 된다.

4. '다른 사유'로 나아가기

아침 일찍부터 더러운 변소를 치우고, 오전에는 거리에 나가 행인과 '접촉'하였다는 이유로 봉변을 당한 바카에게 오후부터는 긍정적인 일들이 생기기 시작하였다. 하나는 군 막사에 있는 챠라트싱 중사가 '새 것에 가까운' 하키 스틱을 준 일이다. 그 후에는 구세군 우두머리인 허친슨 대령이 친절한 태도로 다가와 복음을 전한다. 바카는 '백인들이 입는 모든 복장을 갖추어 입은' 백인 목사에게서 바지 한 벌을 얻어 입고 싶은 마음에 그를 따라간다. 하지만 '더러운 천민들'만 데리고 다닌다는 목사 부인의 타박이 무서워 자리를 피한다. 그리고서 무심코 걷다가 '간디 집회' 장소에 다다르게 된 것이다.

작가는 간디의 연설과 그에 반박하는 젊은 시인의 말에서 불가촉천민 문제에 대한 궁극적인 해결책을 찾고자 하였다. 그러나 작가가 불가촉천민을 재현하는 방식과 불가촉천민 문제 해결을 제안

37) 빠르타 짯떼르지 지음, 앞의 책, p. 343.

하는 방식 모두에서 내면화된 오리엔탈리즘이 발견된다. '서양보다 열등한 동양'을 상정한다는 것은 인간을 위계화하는 가치 질서에 들어가는 것이기도 하다. 그 척도가 '문명화'의 정도라 할지라도, 그때 기준이 되는 '문명' 자체에 이미 내재된 모순을 사유하지 않고는 궁극적인 '인간 해방'의 길로 나아갈 수 없다. 이렇게 볼 때, 인도 사회에서 불가촉천민의 문제를 어떻게 보는가 하는 점은 곧 식민지 이후 인도 사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과도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 또한 이는 오늘날 새롭게 대두되는 서발턴 문제에 침묵으로 공모하지 않으려는 담론적 실천과도 관련 있다.

거슬러 올라가 살펴보면 불가촉천민들이 억압된 상황에서 벗어나고자 했던 것은 영국 지배 이전 시기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자유주의 사상이 유입되고 영국 선교사들에게 교육의 기회를 얻은 불가촉천민들이 생겨나면서, 이들의 저항은 집단적이고 사회적인 성격이 강해졌다. 19세기 인도 서부 지역에서 활동한 조띠라오 풀레(1827~1980)는 유명한 사회개혁가였다. 그는 반(反)카스트, 비(非)브라만 사상가로서 하층카스트의 시각에서 역사와 종교, 사회 문제를 제기했다.[38] 풀레는 이후에 본격화된 반(反)식민지 운동을 전개한 민족주의자들과는 입장이 달랐다. 그는 영국의 정치적 지배와 상층카스트에 의한 사회적 지배라는 이중 지배에 대하여 분명히 인식하고 있었다. 그러나 그가 비판의 초점을 둔 것은 상층카스트였다. 영국의 정치적 지배는 자유와 평등에 입각한 '문명화된' 지배지만, 브라만의 지배는 영국 통치자들의 감독을 피해 일어나는 '폭압적인' 지배라고 보았기 때문이다. 이는 사회적으로 교육의 기회조차 박탈당한 불가촉천민 출신이었던 풀레가 영국 선

38) 이지은, 「인도 식민지 시기와 국가형성기 하층카스트 엘리트의 저항 담론 형성과 역사인식」, 東洋史學會, 『東洋史學研究』 第125輯, 2013. 12, pp. 406-407.

교사가 운영하는 학교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었던 전기적 사실과 무관하지 않다.[39] 이처럼 하층카스트에 대한 차별과 억압에 집중한다면 문제의 핵심은 강도 높은 신분차별을 일삼는 인도 사회 내의 종교와 문화적 관습에 대한 비판이 될 수밖에 없다. 이때 식민지배자 영국은 오히려 인도적, 제도적으로 계급차별을 해소하는 데에 일조하는 구원자의 위치에 놓일 수 있다.

그렇다면 인도 사회의 모순에서 비롯된 불가촉천민의 차별을 직시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제국주의자의 식민 지배를 동시에 문제 삼을 수는 없을까? 다르게 표현해 보자면, 온정주의로 불가촉천민을 대하는 간디식의 내셔널리즘이나 시인이 말한 발전론을 넘어서는 지점에서 불가촉천민의 문제를 사유할 수 없을까? 여기에서는 라틴아메리카의 식민주의를 고찰한 월터 D. 미뇰로의 '경계사유'라는 개념을 빌려 불가촉천민 문제 해결을 위한 '다른 사유'의 가능성을 논의하고자 한다.

월터 D. 미뇰로는 『로컬 히스토리/글로벌 디자인—식민주의성, 서발턴 지식, 그리고 경계사유』라는 저서에서 과거에 자신이 '지식과 인식론에 관한 근대의 보편적 관점'에 빠져 있었음을 반성한다. 자신이 개념적 사유를 할 때마다 로컬 역사가 아니라 글로벌 디자인과 관련시켜왔다는 것이다. 이때의 '글로벌 디자인'이란 '유럽의 로컬 지식과 역사'에 의해 조종되는 관점이다.[40] 즉 '유럽중심의 근대적 보편'을 척도로 사유하는 것의 한계를 스스로 인식하게 되었다는 말이다. 그가 말하는 '경계사유'의 잠재력은 영토적 사유의 한계를 극복하는 데에 있다. 그는 이슬람 학자인 카티비의 논문을 분석하면서 서양과 이슬람 모두를 비판하는 가운데 카티비가 '다른 사유'를 시작할 수 있었음을 높이 평가한다. 그는 카티비가 '마

39) 같은 글, pp. 420-421.

40) 월터 D. 미뇰로 지음, 이성훈 옮김, 『로컬 히스토리/글로벌 디자인 - 식민 주의성, 서발턴 지식, 그리고 경계사유』, 에코리브르, 2013, p. 121.

그레브'라는 지리역사적 장소를 사유하면서 '복수의 마그레브'에 귀를 기울이고, '마그레브의 외부'도 경청할 수 있었던 점에 주목한다.[41] 이것은 한편으로 동일성과 차이에 따라 어떤 대상을 단일하게 고착된 것으로 사유하는 방식을 넘어서는 것이다. 또한 그 대상을 개념으로 구성해 낸 인식 틀에 대한 비판까지도 포함하는 사유 방식이다.

여기서 '인도 불가촉천민의 아버지'라 불리는 암베드카르의 방식을 살펴보자. 불가촉천민으로 태어나 자신의 삶을 불가촉천민 해방에 헌신한 암베드카르는 '마하트마'라 불리는 성인(聖人) 간디에 맞선 몇 안 되는 인물 중의 하나였다. 그는 힌두 중심의 내셔널리즘은 결코 불가촉천민의 해방을 위한 이념이 될 수 없다고 보았다. 그는 힌두교가 불가촉천민들에게는 "합법적인 공포의 연옥"[42]이라고 말한다. 그는 인간의 자유와 평등을 저해하는 힌두교를 버림으로써 자신의 신념을 지켜나가고자 하였다. 암베드카르는 인도 사회의 결속을 저해하는 카스트 제도를 철폐하고, 민주주의 원리와 자유와 평등과 박애의 정신을 바탕으로 한 새로운 사회 질서를 수립해 나가고자 하였다.[43]

암베드카르는 힌두교의 틀에서 카스트 차별을 없애려는 시혜주의적 태도를 벗어나서 불가촉천민 문제를 매우 구체적으로 다루었다. 불가촉천민들에게는 교육의 기회가 필요하고, 행정부에 자리를 잡아야 하며, 국회에 들어가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고 보았다. 그는 자기 사유의 '위치'를 '주변'으로 설정할 줄 알았다. 영국과 미국에서 최고의 교육을 받고 행정부의 장관직에 오를 만큼 출세한 후에도 '주변부'에서 사유한 것이다. 이는 그가 불가촉

41) 같은 책, pp. 125-126.
42) 디완 챤드 아히르 지음, 이명권 옮김, 『암베드카르』, 에피스테메, 2005, p. 282.
43) 같은 책, p. 241.

천민의 지위 개선뿐 아니라 차별과 억압의 대상이었던 여성의 해방에도 적극 노력한 데에서 드러난다. 인도 정부의 초대 법무장관이자 헌법기초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암베드카르는 고대로부터 내려온 여성 차별 의식을 제도적으로 바로잡고자 하였다. 그는 일부일처제를 합법화하고, 여성에게도 재산권과 입양권을 부여하고자 하였다.[44]

그러나 암베드카르 역시 유럽식 발전과 진보에 대한 맹목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 "민주 사회는 '기계문명! 더 발달된 기계문명!' '현대 문화! 더 발전된 현대 문화!'를 소리높이 부르짖어야 한다"[45]고 주장하였던 것이다. 그 역시 유럽식 근대 교육의 아들이었다. 자유와 평등과 박애의 이념을 실현하기 위해 법과 제도를 만들어 불가촉천민의 해방을 위해 투쟁했지만, 독립 이후의 인도 사회는 서구식 산업화를 맹목적으로 추구하면서 결국 암베드카르가 그토록 강조했던 민주주의를 후퇴시키고 말았다.

그렇다면 더욱 어려운 문제와 마주해야 한다. 일찍이 인류가 직면해야 했던 문제지만 너무 서두르느라 놓치고 말았던 문제다. 그것은 바로 '유럽의 정신'에 대한 반성적인 성찰이다. 이는 '서양'이냐 '동양'이냐의 이분법적인 논의를 시작하려는 것이 아니다. 인류의 4/5를 노예로 만들었던 '유럽의 기술'과 '유럽의 정신'에 대한 철저한 반성 없이, '동도서기(東道西器)'식 주장으로 편리한 결론을 도출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 이 때문에 알제리 해방에 헌신했던 파농은 마지막 순간까지 '유럽을 버려라'는 강렬한 메시지를 전하고자 하였다.

> 아프리카를 또 다른 유럽으로 만들고 싶다면, 아메리카를 또 다른 유럽으로 만들고 싶다면, 우리의 운명을 유럽인들에게 맡겨도 좋다.

---

44) 같은 책, pp. 186-193.
45) 같은 책, p. 295.

> 그들은 우리들 중 가장 뛰어난 사람들보다도 그 일에 관해 잘 알고 있다. 그러나 인류를 한 걸음 전진하게 하게 싶다면, 인류를 유럽이 보여준 것과는 다른 차원으로 이끌고 싶다면, 우리는 새로운 발명과 발견을 이루어야 한다.[46]

유럽을 버린 '새로운 발명과 발견'은 무엇일까? 그 답이 '동양의 전통'에 있다는 사고 역시 '전도된 오리엔탈리즘'이다. 다만, 월터 미뇰로의 지적처럼 '특정한 로컬의 관점'(유럽의 지식)에 사로잡혀 지식의 영역에서 밀려났던 인류의 무수한 로컬 지식들을 되살려 '다른 사유'로 나아가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할 수 있다.

『불가촉천민』의 후반부에서 '젊은 시인'은 인도인 모두가 '기계'를 받아들이게 되어, 마침내 "우리는 우리의 지배자들을 바로 그 분야에서 패배시키고 말거야."[47]라고 말한다. 하지만 이는 어떤 분야에서 식민 지배자들을 이길 수 있더라도 그들이 만들어놓은 모순된 구조에 점점 깊이 빠져드는 결과를 초래한다. '인간 해방'을 외치면서도 인간을 착취하는 구조, '자유'를 부르짖으면서도 스스로를 기꺼이 물질의 노예로 만드는 구조다. 이런 이유로 타고르는 "서구 문명과 경쟁하는 것이 인도에 아무런 이득도 되지 않는다."[48]고 말한다. 서구 문명이 만들어내는 불꽃은 감탄을 자아낼 정도로 화려해서 사람들의 눈을 현혹시키지만, 그것은 '불꽃놀이'처럼 이득과 생산에 비해서 힘과 물질을 파멸적일 만큼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결코 영원할 수 없다는 것이다.

타고르는 인도의 카스트 제도에 대해 깊이 성찰하면서, 그것이

---

46) 프란츠 파농 지음, 남경태 옮김, 『대지의 저주받은 자들』, 그린비, 2004, p. 357.
47) M. R. 아난드 지음, 앞의 책, p. 132.
48) 라빈드라나트 타고르 지음, 손석주 옮김, 「인도에서의 내셔널리즘」, 『내셔널리즘』, 글누림, 2013, p. 93.

오랜 역사 동안 수많은 인종과 함께 살아가기 위해 종교적 관점에서 만들어진 '질서'였다고 말한 바 있다. 미국이나 호주에서처럼 토착성을 말살하려고 하지 않으면서 '다양성'을 공존하게 하는 인도 나름의 방식이었다는 것이다. 하지만 카스트 제도는 인간 다양성을 '고착화'함으로써 유동적이고 변화가능한 인간성을 말살하였다. 타고르는 이것이 인도인들에게 "가장 끔찍한 벌"[49]이었음을 토로한다. 그러면서도 그는 이처럼 끔찍한 잘못이 '손쉬운 정치적 자유'로 해결되지 않으리라 보았다. 왜냐하면 타고르는 국가 체제를 이루어서 '서구 따라잡기'를 목표로 하면서 주어진 자유란 기껏해야 자유라는 가면을 쓰고 거대한 노예 조직을 만드는 일임을 간파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돈을 버는 것을 최고의 목적으로 삼는 자들이 무의식적으로 그들의 생명과 영혼을 부자들이나 돈을 의미하는 단체들에 팔고 있다."[50]는 것이다. 타고르는 인간에게는 본능적인 이기심뿐 아니라 도덕적인 마음 또한 있다고 보았다. 그래서 그는 "외적으로 검소하고 내적으로 풍요로운 삶", "경제적 착취와 갈등이 아니라 사회 협력의 토대 위해 튼튼히 서 있는 문명"[51]을 만들자고 요청하였다. 이는 서발턴을 양산하는 신제국주의 시대에, 새로운 성찰과 실천을 요구하는 인문학을 향한 간청으로 들린다.

오리엔탈리즘을 내면화한 내셔널리즘 이데올로기는 '서구 따라잡기'를 목표로 국가 단위의 경쟁을 합리화함으로써 온 국민을 '무한 경쟁'의 지옥으로 내몬다. 이러한 사유 틀에서는 예전의 신분제를 벗어나게 되더라도 더욱 혹독한 예속 상태에 묶이고 만다. 전 지구적 자본주의 시대에 '서발턴의 재현'은 이러한 문제의식을 공유하는 데에서 다시 시작되어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오늘의 전지

49) 같은 책, p. 101.
50) 같은 책, p. 103.
51) 같은 책, p. 109.

구적 삶의 양상에서는 자본의 재편으로 '서발턴의 편재화'가 심각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참고문헌

1. 기본 자료

M. R. 아난드 지음, 정혜경 옮김, 『어느 천민의 하루』, 한길사, 1985.
Mulk Raj Anand, *Untouchable*, Penguin Books, 1940.

2. 논문

박홍규, 「간디의 자유사상」, 영남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인문연구』 62호, 2011. 9, pp. 215-250.
이은구, 「힌디 달리뜨 문학 비평」, 한국외국어대학교 외국문학연구소, 『외국문학연구』 제37호, 2010년 2월, pp. 291-314.
이지은, 「인도 식민지 시기와 국가형성기 하층카스트 엘리트의 저항 담론 형성과 역사인식」, 東洋史學會, 『東洋史學研究』 第125輯, 2013. 12. pp. 405-440.
정채성, 「하리잔(Harijan)과 달리뜨(Dalit) : 불가촉천민의 집단의식 형성」, 한국인도학회, 『인도연구』, Vol.8, No.1, 2003, pp. 61-83.
수크리타 폴 쿠마르, 「인도 문화 다양성—다언어, 그리고 언어와 문학의 상호작용」, 『아시아』 통권 13호, 2009년 여름호, pp. 216-245.
Ben Conisbee Baer, "Shit Writing: Mulk Raj Anand's *Untouchable*, The Image of Gandhi, and the Progressive Writers' Association", *Modernism/modernity*, 16-3, Sep. 2009, pp. 575-595.
Jessica Berman, "Toward Regional Cosmopolitanism: The Case of Mulk Raj Anand", *Modern Fiction Studies*, 55-1, Spring 2009, pp. 142-162.
K. D. Verma, "The Metaphors of Untouchable and Coolie in Mulk Raj Anand's Novels *Untouchable* and *Coolie* and His Sense of Social Justice", *Asiatic*, 2-1, June 2008, pp. 32-46.
Suresht Renjen Bald, "Politics of Revolutionary Elite: A Study of Mulk Raj

Anand's Novels", *Modern Asian Studies*, 8-4. 1974, pp. 473-489.

3. 단행본

김재용 지음, 『세계문학으로서의 아시아문학』, 글누림, 2012.
임지현 지음, 『민족주의는 반역이다』, 소나무, 1999.
한형식, 이광수 지음, 『현대 인도 저항운동사』, 그린비, 2013.
우에노 치즈코(上野千鶴子) 지음, 이선이 옮김, 『내셔널리즘과 젠더』, 박종철 출판사, 2000.
디완 챤드 아히르(Diwan Chand Ahir) 지음, 『암베드카르』, 이명권 옮김, 에피스테메, 2005.
라빈드라나트 타고르(Rabindranath Tagore) 지음, 손석주 옮김, 『내셔널리즘』, 글누림, 2013.
빠르타 짯떼르지(Partha Chatterjee) 지음, 이광수 옮김, 『민족주의 사상과 식민지 세계』, 그린비, 2013.
월터 D. 미뇰로(Walter D. Mignolo) 지음, 이성훈 옮김, 『로컬 히스토리/글로벌 디자인 – 식민주의성, 서발턴 지식, 그리고 경계사유』, 에코리브르, 2013.
프란츠 파농(Frantz Fanon) 지음, 남경태 옮김, 『대지의 저주받은 자들』, 그린비, 2004.
Cary Nelson and Lawrence Grossberg Ed., *Marxism and the Interpretation of Culture*, London: Macmillan, 1988.
Gayatri Chakravorty Spivak, *A Critique of Postcolonial Reason: toward a history of the vainshing present*, Cambridge: Harvard UP, 1999.
Ranjit Guha and Gayatri Chakravorty Spivak Ed., *Selected Subaltern Studies*, Oxford: Oxford UP, 1988.

[Abstract]

Nationalism as an Imitated Orientalism in the Representation of Untouchable
- Focusing on Mulk Raj Anand's *Untouchable* -

Kim, Insook

The object of this thesis is to look into nationalism as an imitated orientalism in the representation of untouchable. To this end, This study took a closer look at how untouchable is represented in *Untouchable*, a novel written by Mulk Raj Anand. In this novel, he represented untouchable in a way of describing how exotic the Indian society is to British readers. In the latter half of the novel, he laid down two solutions to resolve the problems that untouchable faces by using Gandhi's speeches and a young poet's comments. One is to reform the Hindu society and the other is to industrialize it according to the western model of development. What is notable is that he defined the western style of civilization as something that the Indian society should make full efforts to follow suit. In other words, this shows that Nationalism is quite the same with the imitated Orientalism. However, what's important is that such solutions cannot lead us to resolving the conflicting social structure where people are xploited to liberate themselves. According to reflection upon Indian society by Rabindranath Tagore, what requires to restore humanity in the Indian society is not the western style of civilization but 'an other thinking'.

Key Words : Untouchable, subaltern, representation, imitated orientalism, nationalism, 'an other thinking'

김인숙
소속: 가천대학교 글로벌교양대학 연구원
주소: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성남대로 1342 비전타워 B206호
전화번호: 031-750-8781
전자우편: lefty0604@gachon.ac.kr

이 논문은 2014년 11월 15일 투고하여
2014년 12월 11일까지 심사 완료하여
2014년 12월 15일 게재 확정함.